

성모 성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5월, 그리스도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고 묵상한다. 침묵과 기도, 순명과 충실로 살아온 성모 마리아의 신앙적 모범을 따르기 위해 성모성월을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5월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성모 성월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교회의 성모 신심

하느님 아들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순간 자리를 지켰던 성모 마리아. 이후 사도들과 기도하며 교회의 시작을 함께한 성모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전구자이자 영적인 어머니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교부 시대 때부터 이어져왔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으며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선언했다. 이후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과 함께 성모 마리아 공경에 대한 문제가 검토됐고, 성모 신심이 장려되는 계기가 됐다. 1568년에는 성 비오 5세 교황이 성무 일도에 성모송을 삽입 시켰으며 이듬해에는 묵주의 기도를 표준화 해 보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16세기 후반에 강화된 성모 신심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의 특징적인 신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 발현이 이뤄진 이후 성모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 됐다. 비오 12세 교황은 파티마 성모 발현 25주년을 맞아 전 세계를 성모 성심에게 봉헌했고 1944년에는 성모성심을 기념하는 축일을 8월 22일로 고정시키고 서방 전례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축일을 지키도록 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인격에 대한 공경과 덕행에 대한 공경,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온전히 동참하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공경이다. 이처럼 교회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 순명한 신앙의 모범을 신자들이 따르도록 권하고자 함이다.

■ 한국 교회의 성모 신심은 어떻게 시작됐나

16세기 후반 유럽에서 성행했던 성모 신심은 17세기에 이르러 유럽 선교사에 의해 중국 교회에 전파됐다. 17세기 초 이탈리아 출신 선교사 롱고바르디 신부는 성모 호칭 기도를 중국어로 번역했고, 부클리오 신부는 북경에서 1676년에 ‘성모소일과’를 간행했다. 또한 1694년에는 수아레스 신부가 ‘성모영보회’를 간행해 성모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중국에 전파된 성모 신심은 18세기에 조선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목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는 조선교회의 새로운 주교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모시고자 했고 1841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1846년 11월 2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무염 성모 성심회’가 설립되는 등 한국 신자들의 성모 신심 운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단체를 통해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문을 바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오늘날 각 본당에 남아있는 성모회의 요체가 됐다. 아울러 신유박해 때 소각된 서적들 가운데 성모 관련 서적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는 기록들을 통해 한국 신자들의 성모 신심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성모 신심 운동 및 사도직 활동도 1950년경에 이르러 활발하게 전파됐다. 1953년 ‘푸른군대’가 미국인 군종신부 마태오 제이 스트롭스키 신부에 의해 소개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됐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두 단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힘들고 고된 현실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며 성모마리아의 은총을 간구했음을 알 수 있다.

■ 성모 성월, 어떻게 시작됐나

동방교회로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비잔틴 전례에서는 이미 13세기에 8월을 성모 성월로 지내기 시작했다. 오늘날 ‘성모승천’ 축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잠드심’ 축일을 8월 15일에 지내면서 이 축일을 더욱 뜻 깊게 경축하고자 축일 전 15일은 단식을 하면서 축일을 지내고 축일 후 15일을 축제일로 지낸 것이다.

한편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는 5월을 마리아의 달로 지내는 관습이 있었다. 13세기 말, 스페인 카스티야 왕 알폰소 10세는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성모 마리아를 통해 얻는 영적 풍요로움을 연결시켜 5월을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달로 지낼 것을 권했다.

17세기 말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부근에서는 5월을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성모 신심 단체가 생겼으며, 나폴리 지역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성모님께 찬미가를 바치고 성체강복을 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1854년 비오 9세 교황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에 공식적으로 성모 성월 행사가 거행되기 시작했다. 성모 성월에 대해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성모 성월은 전 세계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며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는 이 기간 동안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모 성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성모 마리아의 신앙고백은 신앙에 대한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과 겸손의 자세를 보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야 할 것이다. 참된 성모 신심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에 있으며 성모 성월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역대 교황들은 성모 성월 신심을 잘 지켜 가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권장했다. 비오 12세 교황은 교서를 통해 “성모 성월 신심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례에 속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적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며 이 신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마리아 신심 운동이 기적이나 발현에 치우치지 말고 전례적인 공경 안에서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성모 성월을 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성모 마리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고 성모 마리아의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5월,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선행과 기도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출처: 가톨릭 타임즈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37670

부활 제 5주일

생명 주일

2023년

05월 0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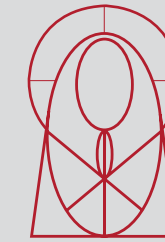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프라 안젤리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1395~1455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 6,1-7
- # 화답송 시편 33(32),1-2,4-5,18-19(©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 제 2독서 베드로 1서 2,4-9
- #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 복음 요한 복음 14,1-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 성기번호 입당 34 봉헌 217 성체 162 파견 245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정창웅(그레고리오) - 가족, 콰울리아나
- 문명선 - 가족, 박재영(요아킴)
- 백봉화 - 가족,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박재영(요아킴), 어부들마을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권옥희 - 이명호(비비안)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김길자(세레나) - 김귀옥(실비아)
- 김길자(헬레나) - 최현지(안토니아)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정 데레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교우, 정 데레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에디슨 구역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데레사) - 임 안나
- 오용덕(헨리코) - 정 데레사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데레사) - 정 데레사
- 박정화, 박덕화(요안나) 가정 - 썸머셋 구역
- 이대우(베드로), 이재성(데레사) - 썸머셋 구역
- 박 안나 - 박재영(요아킴)
- 박재영(요아킴) - 박 안나
- 유용희(울리아나) - 박 안나
- 서영원 - 박 안나
- 손홍구(바오로), 손진희(글라라) - 박락준(베드로)
- 송광석(어거스틴) - 에디슨 구역
- 정명숙(데레사) - 채미영(데레사)
- 이승빈(레오) 졸업 축하 - 채희백(바오로) 가족
- 서범석(펠릭스), 김유진(마르셀라) 혼배 축하 - 혼배 축하

- 이보현(요안나) - 피스브릿지 구역
- 허정(아나스타시아) - 최정원(레지나)
- 김자경(크리스티나) - 이가현(카타리나)
- 본당의 모든 어머님들 - 썸머셋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30 주일 헌금 (144명)..... \$1,511
- 2차헌금 (Catholic Relief Services)..... \$546
- 감사헌금 (하연승 \$100, 익명 \$100) \$200
- 교무금 \$1,820
- 이광재(5) 백상현(5) 채희백(5-6)
- 콰유리안나(5-6) 이막동(1-12) 백영숙(4-6)
- 임문수(5)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28까지 약정 금액은 \$35,764.14 (목표금액의 96.66%)입니다. 현재 목표액에 \$1,235.86 미달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차 헌금

- 5월 7일: Development of the People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선교 지원)
- 5월 14일: 유틸리티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2023년 5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5월 성모의 밤 미사가 5월 21일(주일)에 있습니다. 신자분들께서 개인별로 미리 준비해오신 성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예비자 교리서(\$8/권) 구매 신청하신 분들은 이서형(요안나) 선교 분과장님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개인 사정으로 2달 가량 주일 미사에 참석을 못합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 지향 신청 봉투와 예물은 주일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사무장이 출근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무장에게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을 평일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732-258-5998)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회의실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소회의실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메타천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후 친교실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성당 친교실 지하 sump pump 교체
- County Fire Department 점검 후 후속 조치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확립 중

신랑 서범석(펠릭스)군과 신부 김유진(마르셀라)양의 혼배가 오늘 미사 후에 있을 예정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콰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제1독서: 사도행전6,1-7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흠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 2,4-9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김현수 프란치스코 신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한 제자들은 실망한 채 길을 나섭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허무하고도 무참한 죽음은 이제 그들을 목적 없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비록 처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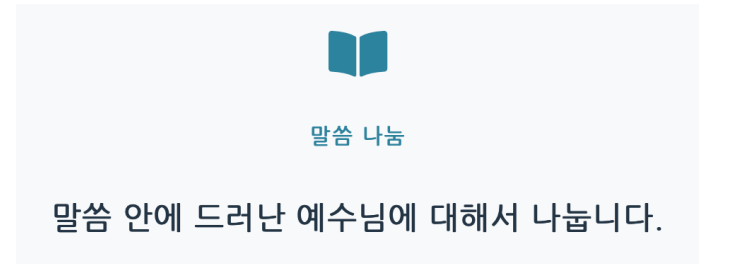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신의 말씀만을 하고 계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어떤 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그때를 잘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함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셨지만, 그때를 잘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직접 마주하였고 눈이 열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눈에 가려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늦게 알아차렸듯, 우리가 삶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할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특별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전교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 교회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떠나가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뒤늦게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한 때가 있나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었나요?